

2022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올해 지나온 날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식의 말씀 / 인도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같이,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1.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2.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3.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5.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 / 말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명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임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말은이, 히브리서 11장 13~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설교 / 설교자- ‘우리의 본향’

‘추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향’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추석이 되면 몇 시간씩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고향을 찾아가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덧없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깊이 묵상하며 천국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남들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 설교자

찬송 / 다같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